

# 중국 후저우만의 자연과 문화가 융합된 그린 투어리즘 브랜드를 만들다

후저우시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차오후이밍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장성 후저우시는 중국에서 3 번째로 큰 담수호인  
타이 호 남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래 역사와 다양한  
문화, 그리고 풍부한 자연을 가진 도시입니다. 심오한  
문화적 배경과 풍부한 생태 자원이 후저우 그린  
투어리즘 진흥에 훌륭한 조건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 5 회 한중일 관광 장관 회의’,  
‘2015 국제 그린 투어리즘 심포지엄’과 같은 국제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 한국 분들을 포함한 각국의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중국 그린 투어리즘 넘버원  
도시’로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시의 그린 투어리즘 발전의 기초와 경과, 그리고 비전에  
대해 3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후저우는 선천적으로 풍부한 자원과 심오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곳입니다. 후저우는 ‘비단의 중심지,  
생선과 쌀의 마을, 문물의 보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후저우는 견직물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후저우의  
견직물은 ‘중국 국내에서 으뜸’이며, ‘후저우의 견직물은

천하의 일품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전산양 유적지에서 출토된 잠사 견직물이 만들어진 시기는 4700 년전이며, 이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발견된 것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잠사 견직물입니다. **후저우는 차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차는 중국의 국민 음료입니다. 후저우의 차 역사는 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 시대에는 투차가 창시되었고, 후저우 출신자가 이것으로 조정에 시중을 들었습니다. 차의 지식에 대해 기록된 세계 최초의 저작물인 ‘다경’은 다성 육우가 후저우에서 집필한 것입니다. 후저우의 남쪽 외곽 저산에 있는 육우의 무덤에는 지금도 한일의 차 문화 전문가와 다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참배하러 가서, 차를 마시고 경치를 즐기며 육우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후저우는 호필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붓, 먹, 종이, 베틀은 중국의 ‘문방사우’라고 불리는데, 그 중 첫 번째로 손꼽히는 붓인 호필은 후저우에서 생산되는 것이며, 몽염이 붓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은 붓을 통해 번영하는 것입니다. 학문과 예술, 교육을 중요시하는 후저우에서는 조불흥, 조맹부, 오창석, 심윤묵과 같이 서화의 대가들이 탄생했고, 왕희지, 안진경, 소동파와 같은 서화의 명사들을 매료시켜 ‘서화사의 절반은 후저우의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시, 글, 그림, 전각에 모두 정통하며, ‘사절’이라 불리던 청나라 말기부터 민국

시대까지의 대가, 후저우 출신의 오창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일본에서 유학을 했으며, 서화 기술을 갈고 닦아 도쿄, 나고야 등의 도시에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일본 유학 경험은 근대 중국 화단에 있어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거장으로서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후저우는 도자기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중국 도자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만, 후저우는 3000 년 전에 명실상부한 중국의 ‘도자기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후 새롭게 떠오른 도자기의 도시 징더전보다도 앞선 시기에 해당합니다. ‘중국 도자사’에 따르면 상·주 시대에 덕청요를 비롯한 동초계 유역은 중국에서 ‘도자기의 고향’으로 여겨졌습니다. **후저우는 술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후저우는 옛날부터 ‘고성’이라 불렸지만, 진 시대에는 오건, 정림 두 사람이 맛 좋은 술을 양조했으므로 ‘오정’으로 지명이 변경되어, 오정의 맛있는 술은 진·한 시대부터 당·송 시대까지 널리 알려지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 시대의 대시인 이하는 ‘천년만년 장수를 부르는 오정주를 당신에게도 꼭 권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시를 읊었습니다. 송 시대에 살았던 후저우 출신의 주익중은 중국 최초의 술에 관한 저작물인 ‘북산주경’을 집필했습니다. 후저우는 ‘술의 고향’으로서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후저우는 생태 문화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후저우는 깊은 문화가

축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원 시대의 시인 대표원은 이 지역에서 ‘강의 남쪽에도 자연이 아름다운 지역이 있지만, 정말 살 만한 곳은 후저우뿐이다.’라는 시를 읊었습니다. 후저우는 지금시로 중국 최초의 ‘생태문명 선진모델지구’이기도 하며, 시내 3 현 2 구는 모두 국가 생태현·구로 지정되어 ‘국가급 생태향진’이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가 넘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안길은 유엔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국 4 대 피서지 중 하나인 더칭 모간산은 미국 ‘뉴욕 타임스’에서 ‘꼭 한 번 가야 할 세계 45 곳의 명소’ 중 하나로 평가 받았습니다. 풍부한 생태 자원과 문화적 자원은 상승효과를 가지며 후저우 그린 투어리즘의 버팀목으로서 그 매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후저우는 다양한 그린 투어리즘 모델과 뛰어난 그린 투어리즘 브랜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후저우는 최근 ‘아름다운 물과 산은 금산은산이다’라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중요한 사상에 따라, 생태적 우위성을 산업적 우위성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며, 독자적인 그린 투어리즘 발전의 길로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내 전체에 그린 투어리즘 추진을 위한 시, 현(구), 향(진), 촌 4 레벨의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행정과 업계가 하나가 된 그린 투어리즘 산업의 발전,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위한 ‘총동원 체제’를 만들어 그린

투어리즘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10의 공정’에 따라 그린투어리즘 모델 10 지구의 정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최첨단 대형 관광 공공(분산형) 안내소와 5곳의 운영시설 건설, 교통 인프라 정비, 주민과 관광객 공용도로 건설, 자연 보도, 환경 배려형 주차장 건설, 스마트형 그린투어리즘 시스템 정비를 가속화하여 그린투어리즘 모델 10 지구에서의 무선 LAN 정비 등 공공 서비스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집중화’, ‘환경배려’, ‘고품질’, ‘차별화’, ‘국제화’, ‘산업화’에 따른 그린투어리즘의 전체적인 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를 기초로 하여 관리, 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린투어리즘의 개성화,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아름다운 농촌의 ‘환경+문화’ 모델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서양식 숙박 시설을 활용한 ‘서양식+중국식’ 모델, 관광 명소 중심의 ‘관광지+농장’ 모델, 관광 농장을 활용한 ‘농장+쇼핑’ 모델이라는 그린투어리즘 4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추진함에 따라 시내에서는 ‘서양식 숙박 시설’, ‘상하이 마을’, ‘대만 마을’, ‘한국 마을’, ‘후저우 민가’와 같은 독자적인 그린투어리즘 상품, 특색 있는 브랜드들이 모여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각 방면에서 인지도를 얻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후저우에는 아름다운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확실한 비전과 독특한 관광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린 투어리즘의 대두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인간의 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에 따른 것입니다. 농촌으로 돌아가 밭을 일구고, 전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피로를 풀고 쉬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강한 욕구이자, 특히 도시인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린 투어리즘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오랜 기간에 걸쳐 매우 잠재성이 있으며, 폭넓은 비전을 가진 관광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앞으로는 ‘역 도시화’의 흐름을 타고 자연과 문화가 하나된 ‘전원 목가형’ 그린 투어리즘 브랜드 확립을 추진하여, 방문자들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명’과 ‘영혼의 고향’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원 시대의 연극 대가 마치원의 시 중에 ‘마른 등나무 늙은 나무, 해가 질 무렵의 까마귀, 작은 다리, 흐르는 물, 인가, 옛길의 서쪽 바람, 여윈 말, 석양이 서쪽으로 지고 애끓는 이 아득히 먼 곳에 있네’라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세계관을 나타낸 시가 있습니다. 또한 당 시대의 시승, 계차에는 ‘뒷걸음질치며 모종을 심고, 고개를 숙여 수중의 하늘을 본다. 즉, 퇴보도 전진과 같다’라는 의미의 선시가 있는데, 이는 선적 경지를 읊은 것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방문자들이 그 환경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문화와

자연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린 투어리즘을 농업, 농촌, 농가와 밀접하게 연결하여 여유로운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농촌 정비와 그린 투어리즘의 발전 과정에서는 본래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 농촌의 모습 그대로를 전달하는 경치와 경관을 전혀 바꾸지 않고 정해진 형식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농촌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문화적인 환경 보전에 노력을 기울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현지 주민들에게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그린 투어리즘에 더 많은 현지 전통 문화 요소를 가미하여, 보다 생생한 그린 투어리즘을 실현하고 시장을 활성화시켜 ‘정적인 요소와 동적인 요소의 일체화 부족’, ‘상호 작용성, 참여성 부족’이라는 현재 그린 투어리즘의 과제에 대처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무브먼트를 조성해 나감과 동시에 다이나믹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을 중시하여, 방문자들에게는 특히 세대 간의 계승,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비물질적인 문화재를 더욱 생생한 형태로 즐기고 무용, 음악, 연극, 운동, 미술, 기예, 민속적인 축제 등 전통적인 활동과 문화를 마음껏 체험해 볼 수 있게 관광지와 명소 PR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후저우 그린 투어리즘의 뛰어난 매력에 관광객들이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후저우에서 맞이하는 말로서 공자가 저술한 ‘먼 곳에서 벗이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끝맺도록 하겠습니다.